



| | | | |
|--------|--------------|------------------|---------------|
| 주 제: | “자선과 나눔” | “대림 제 3 주일 ” | 2009년 12월 13일 |
| 복음 묵상: | [루가 3,10-18] | [이사 35,1-6 7.10] | [야고 5,7-10] |

오늘 전례의 주제는 ‘기쁨’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뻐한다. 대림절은 회개와 보속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큰 기쁨의 시기이다.

오늘 복음에서 회개의 표시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누라고 요한이 외치고 있다. 회개하면 기뻐지고 기뻐지면 서로 나누게 된다. 세상에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만일 누구도 나누기를 거부한다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오늘은 특히 자선주일이다.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교회가 정한 날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선을 받는 날이다.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되돌려 받게 된다. 그래서 자선은 여러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 주는 사람도 풍요롭고 받는 사람도 풍요롭게 된다. 주님이 풍요롭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슬퍼하는 사람들 곁에서 일생 머물러 계셨다. 그분의 이웃은 밑바닥 인생들이었다. 우리도 잘 나고, 똑똑하고, 있는 사람들만 사귀면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적어도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다. 마음이 가난한 자란 붙잡을 것이라고는 오직 주님 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천국을 차지하고 예수님을 차지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다. 땅에 쌓으면 좀 먹거나 녹슬어서 못쓰게 되며 또 도둑이 훔쳐간다고 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인가? 그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진정 내 것이 된다. 땅에 쌓은 것은 아무리 쌓아도 영원히 내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늘에 쌓는 것만이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기쁘기 때문에 나누고 또한 1년 동안 잘못 산 것이 많기 때문에 회개의 표시로 나누도록 하자. 그리고 나눌 때 자기 것으로 채워지는 풍요로움을 얻게 되며 또한 바로 그 나눔 안에 주님께서 탄생하신다.
(부산 김운근 신부님 강론 중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순덕 카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시기 전례

대림시기의 각 주일의 주제 및 전례적 성격
대림 제 3 주일: 구세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뻐하라고 권고
대림 제 4 주일: 예수 탄생의 예고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힘.

오늘의 말씀 사랑: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1 코린 8.3).”

+ 복음 [루카 3,10-18]



그때에 10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13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14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7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18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분 명상

♡"나눔의 기도"♡ 이해인 수녀님의 '사계절의 기도' 중에서 -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쁘는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진정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나눔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당신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아낌없이 모든 것 내어주고도
 한끝의 후회가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



나눔을 언제나 자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미소
 나의 기쁨, 나의 재능,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물건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경건한 행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더 많이 바칠수록
 남에게 더욱 빛나는 선물이 됨을
 향시 기억하게 하소서

차거운 세멘트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이들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